

곤충산업거점단지 남원시 최종 선정

곤충먹이원·사육표준화·유통 등 산업화 기반 마련 도,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0억 포함 총 200억원 투자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지역 곤충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축산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곤충 생산·가공시설, 유통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사업계획 확정 후 4월 17일 전문심사단의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2022년 경부 예산, 2023년 강원 춘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남원시를 곤충산업거점 단지 조성지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 확정 배경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활용 곤충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곤충생산 수직계열화 △(주)죽이야기 등 국내유수 식품업체들의 참여 수요 창출형 유통채널 확보 △곤충사육 통합관리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이 평가단의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약 1만평 규모)로 조성하며, 3개년(2024~2026년)간 지방

비 포함 총 200억원을 투자해, 종합컨트롤센터(1개소, 744㎡), 전처리 가공센터(1동, 6,022㎡), 스마트팜(1개소, 540㎡), 임대형스마트팜(1개소, 2,340㎡)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와 함께 도내 관련 대학, 익산시 식품클러스터 관련기

업, 연구기관, 국내 식품관련 대기업 등과 함께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식품, 펫푸드, 신약소재, 천연소재(화장품, 향료) 및 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시너지를 통한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 곤충산업 구조는 생산·유통까지 전담하는 농가중심형 산업구조로 돼 있으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후에는 종충관리 및 원종공급, 임대형 곤충스마트팜(대량생산), 전처리(1차가공), 전문업체(2차 가공, 관련기업 제품생산(식품, 펫푸드, 사

료, 화장품 등), 기업판매로 이어지는 공급체인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기존 곤충산업 구조와는 다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유망 산업으로 산업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전북에 조성된 것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곤충자원의 활용범위가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곤충산업이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락1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송하진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0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시회 개막식 서예퍼포먼스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지역 문화누리카드 협력가맹점 모집

전북자치도, 1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지역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촉진 사업 참여 협력가맹점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화장터(트럭), 비대면 책자 제작 및 배포, 쇼케이스 홍보, 관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협력가맹점은 기존 도내 문화예술·관광·체육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며, 신청 희망 가맹점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에서 지원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가맹점은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상품 또는 서비스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문화누리카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도내 약 14만 명의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전년 대비 2만원 상향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지역활력타운 2곳 공모 선정

김제 힐스타운 시암·부안 해뜰 웰니스타운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최종 후보지로 올라간 김제시와 부안군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시행된 지역활력타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체육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해당 부처의 국비 지원과 함께 각종 인·허가 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제시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은 국비 40억을 포함하여 총 412억의 사업비를 들여 스퀘어스CC,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김제운천구역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은퇴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98세대를 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을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 자리잡게 될 부안군 해뜰 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과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국비 28억 등 사업비 354억을 투입해

총 80세대를 분양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연말까지 모든 시설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작년에 이어 잇따른 공모 선정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자치도의 생활인구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장 소재지 위생부서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rkore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후 점수에 따른 등급이 부여되고 인증비용은 국가부담으로 무상이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와 시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1:1 맞춤형 기술지원(사전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활용해 식품기업 경쟁력 높인다

도내 식품기업 24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식품기업(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본 사업은 도내 식품기업이 유일한 국가 식품 전문산업단지이자 대표적 인 농생명혁신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우수한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영양성분 분석, 시제품 제작, 식품포장의 설계·제조·검사 등을 할 수 있는 837종의 장비와 12대 기업지원시설(올해 준공예정인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원료은행 포함) 등 식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주)판조아 농업회사법인(은 HACCP 유효성 검사, 영양성분 분석검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아 생산비용 절감, 지난해 대비 총매출액 20% 상승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도내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장비를 이용해 제품의 경쟁력 확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보지 못한 동부권 식품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063-280-3665)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압류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과

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7,6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